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기업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보증에 대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을 실시하고

재해피해를 입은 가입자 대상으로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신보의 재난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과
농신보의 농어업재해대책자금신용보증 등을 통해
재해 피해 복구자금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1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반등의 흐름]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대응조치들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 P-CBO 등
시장안정화조치들을 신속하게 가동하였습니다.

이에 국내 금융시장은 빠른 안정세를 보이며
증시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코스피(2,386.3p/8.10일), 코스닥(862.7p/8.10일)

2분기 기업실적은 상당수가
시장전망치를 상회*하는 등 양호한 편이며
향후 실적 전망도 다른 나라에 비해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 전망치 이상 기록: 53.1%,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 40.8%(8.5일 실적 발표한 98개 상장사 기준)

** EPS 증기율 컨센서스(12개월 예상) : 韓33.2% 日10.9 中18.4 美6.2 英△4.1 獨3.4(8.7일/Thomson Reuters 등)

또한 6월 산업생산지수*가 4.2% 증가하는 등
실물경제도 경기반등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전월비) `20.3월 △0.1%, 4월 △2.9%, 5월 △1.2%, 6월 4.2%

과거의 경험을 타산지석(他山之石) 삼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회복과 안정’이라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부각된 문제점들도 반면교사(反面教師)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극복과정에서 크게 증가한
기업부채는 줄어들지 않았고
경제적 양극화는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위기 이후 생존한 기업들이 활력을 찾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들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화될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 속에서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증대된 시중의 유동성과 기업의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등

예상되는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2 양극화 해소와 기업부채관리]

이번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는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의 금융애로가 심화되지 않도록
서민금융 등을 통해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조정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신용등급 기업, 취약업종 등에 대해서
「저신용회사채 CP 매입기구」,
「자동차부품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3,774억 지원) 등을
운영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P-CBO」도 8월 2,000억원 규모의
추가 발행을 차질없이 준비중이며,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도
지난 8월 5일 프로그램을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기업부채가 늘어난 만큼
「기업자산매각 지원프로그램」, 「기업구조혁신펀드」 등을 통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에서도 코로나19로
변화하는 시대상에 걸맞는 혁신적인 시각으로

기존의 제품과 서비스에서
새로운 기능과 목적을 창출(Repurposing)하여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2-3 기업활력 제고와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정부는 위기를 낭비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기술, 환경변화에 맞추어
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반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변화를 선도해 앞서 나가는 기업과 산업 분야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로
디지털을 이용한 비대면 경제로의 변화가 가속화되며

변화에 동참하지 못한
대형 유통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되었지만
디지털 주문과 드론을 활용한 유통·배달 업체 등은
테크기업으로 발돋움한 사례가 있습니다.

IMF*도 한국에 대하여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External sector report : Global imbalances and the COVID 19 crisis(20.8.4./IMF)

(Korea) Continue accommodative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Implement structural policies to stimulate investment and facilitate rebalancing of the economy toward services and other new growth drivers.

이에 정부는 민간과 금융이 참여하는 뉴딜펀드, 모험자본, 정책금융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디지털 인프라,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특히 뉴딜펀드는 금융투자시장에 새로운 투자기회와 활력을 제공하고 국민들께 안정적인 재산증식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그린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권과 「녹색금융 추진 TF」를 구성하여 녹색금융의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 투자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 마무리 말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집중호우,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은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발생 이후의 영역은 정책적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여 피해를 조속히 회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